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눈물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3)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4)

적용하기



으면 복이 와요 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입니다.

이제는 추억의 프로가 되었지만, 당시 한국의 내노라하는 코미디언들; 구봉서, 남철-남성남, 배삼용, 이주일씨 등이 나와서 온 국민의 배꼽을 잡게 했던 코미디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였는지, 1969-1985년까지 무려 16년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웃으면 복이와요” 라는 제목 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신나게 웃었던 추억들이 이 코미디 프로의 제목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 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 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어네스트 베커 (Ernest Becker)

1. 소문만복래는 “웃는 집 대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웃음이 많은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의학에서 흥미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법입니다. 영어로는 Laughter Therapy라고 말 그대로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 웃음 치료법이 중세부터 시작된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궁중에는 항상 광대가 있었는데, 이 광대의 역할은 왕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왕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배불리 먹고 소화가 안될 때, 광대를 불러서 신나게 웃다 보면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왕의 소화를 위해 광대를 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웃음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웃음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웃음이 긴장 완화 뿐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0초 동안 깔깔대고 웃으면 3분 동안 달리기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웃음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인 엔돌핀도 많이 나오게 한다 합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있는데 사람이 웃었을 때 입김을 공기 주머니에 넣고 그 안에 모기를 넣으면 오래 사는데 비해, 화를 냈던 사람의 입김을 넣은 주머니의 모기는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모로 웃음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 팀켈러 목사의 책 “고통에 답하라”라는 책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이전세대 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고난과 슬픔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했습니까? 고난과 슬픔이 인간의 삶에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현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고난에 취약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왜 앓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통/슬픔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인간은 원래부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성숙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학생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픈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곡 제목처럼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내용의 노래인데, 이 노래처럼 사람들은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 중심이고, 자존감이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로 가면서,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존감으로 살던 사람들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성숙하는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 자기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고통을 없앨 능력은 없으니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대에 그렇게 많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가 있게 된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 솔로몬 왕은 전도서 7: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혼인집의 웃음보다 초상집의 눈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이 전도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 인생이 진지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대에서 고생을 하며 흘리는 눈물이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눈물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3)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4)

적용하기

하 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고,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팀켈러 "고통을 말하다" 중에서-

그 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온순하고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길들여진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자신의 뜻과 기질을 절제하고 누리고 있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3.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슬픔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 최고 극강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은 무슨 슬픔이길래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눈물이고,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 오늘 본문의 애통은 팔복의 첫번째,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었어야 할 추악한 죄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 패역한 반항이었고,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게 없는 파산한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본문의 애통함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는 죄송함의 애통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건만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눈물은 항상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 통분한 마음을 가졌을 때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을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 울고 있는 자녀를 가슴으로 품는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울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4. 신자들이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애통함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인데, 교만이 애통함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어? 저 사람은 어찌 그 모양이야.' 라는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서 오는 기쁨과 안정감이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눅 2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C. S 루이스가 왜 교만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세리, 창기, 강도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한 경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교만의 요소들; 비교하고, 경쟁하고, 적대감을 갖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교만이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자신에 대해 눈물을 흘릴 기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눈물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3)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4)

적용하기

찬 송가 151장 가사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분명히 십자가를 보며 벌레 같은 자신을 발견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원한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를 곤두박질치게 한 십자가가 큰 위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애통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며, 벌레같은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데 자신을 들여다 보는 대신 남들을 보며 비교하고, 경쟁하고, 적대감을 갖느라 자신을 바라 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기댈 것 없는 영적 파산자인지, 하나님 진노 앞에 죽어 없어져야 할 죄인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인데, 쳐다 봐야 할 자신은 보지 않고 남들을 보며 비교하고 자신이 우월함을 찾고 있으니 자신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터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야 할 죄와 허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니 자신의 심령이 가난할 겨를도, 자신에 대해 애통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입니다.

5. 우리의 애통함을 방해하는 “교만”을 저지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교만을 끊어버리게 만듭니까?

-교만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시선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못박힌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는 자신의 참된 실존이 나의 교만을 깨뜨리며, 심령이 가난해지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애통함만을 주지 않습니다. 애통의 눈물과 더불어 그 애통을 능가하는 위로를 전해 줍니다. 교만을 비롯하여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확인하기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